

##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봄

사무실 건너 경복궁 뜰 안의 나무들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하던 시민공원 생강나무도 노란 꽃망울을 달았습니다. 가끔 황사가 섞이긴 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완전한 봄입니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서울 문리대 선언문)

“오빠와 언니들은 왜 총에 맞았나요?”(수송초등학교 강명희)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4·25교수단 시위)

56년 전 4월, 까만 교복 차림의 학생들과 백의의 시민들이 물결쳤던 4월혁명의 거리도 찬연한 봄날이었습니다.

그해 4월혁명은 많은 피를 흘렸으나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 규정의 예외 허용 등을 담은 사사오입 개헌을 폐기하고 의원내각제 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의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제2공화국 헌법)을 통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였습니다.

1987년 6월의 거리는 장대했습니다. 교정을 박차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남녀 청년·학생들과 그들을 에워싼 회사원, 시민들은 거리를 축제로 수놓았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국 38개 시·군에서 5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해방의 공동체, 그해 여름은 찬란했습니다.

6월항쟁의 결과 제5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할 것을 분명히 하고 국정조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현행 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신 이후 긴급조치와 계엄령, 위수령으로 유지했던 억압의 시대를 끝내고 ‘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4월혁명과 6월항쟁은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완전한 봄날 창 너머로 펼쳐진 북한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새삼 우리 현대사에서 4월혁명과 6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민주주의가 더 축축하게 오롯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상증